

새 천년의 주거생활 문화

박 선 회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새천년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웬지 모를 불안올 주기도 한다.

발전지향적으로 살아 온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 어느 시대 못지 않게 첨단 과학 기술의 혜택으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상적으로도 신분계급이나 남녀문제나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차별이 사라져가는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생활을 맛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혜택과 이익을 얻는 대신 지나친 물질의 생산과 사용의 과다는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즉,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따른 삶과 사람의 평가가 횡행하는 기이한 구조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가 피폐된 정신환경의 진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공감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마도 다가올 21세기에 대한 불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주거생활도 반세기도 채 안되는 이 시점에 그동안 놀라운 변모를 거듭하여 비교적 선진국과 가까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가올 주거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되어지는 불안을 막고 더 멋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새천년의 주거생활문화에 대한 주제를 거시적이고 개념적인 정책적 내용보다는 생활과학의 한 맥락에서 미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지향적인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며 학술 이론적 내용보다는 평이한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

1. 우리 집 엿보기

우리가족은 4인-부부와 아들2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한 지 올해 19년이다. 혼인 후

전세에서 출발하여 이후 4번 이사하여 현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구성은 침실4-LDK로 되어 있다. 아파트는 평면은 전형적인 한국의 표준화(?)된 평면으로 각 침실은 거실을 중심으로 네 귀퉁이에 날개처럼 달려 있다.

모든 방은 입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좌식생활도 종종 즐기고 있다.

2. 남편의 방황

남편의 주생활은 대개 매우 일정하다. 밤 늦게 귀가하는 편이며 귀가 후 옷 갈아 입자마자 바로 거실에서 T.V 보기가 시작된다. 주로 바둑과 코미디 드라마 이 세가지이다. 중간에 재미가 없으면 아침에 못다 읽은 신문을 펴든다. 연구실이 부족하여 책이 거실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 읽거나 별로 찾지도 않는다. 12시경쯤 되면 안방에 놓인 침대에서 부부의 취침이 시작된다. 주말에도 큰 차이가 없다. 가끔 외출을 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과일이나 먹던 접시를 부엌에 잘 갖다 놓는 편이다. 또한 본인이 필요할 때는 직접 꺼내 먹는 경우(술, 안주거리, 과일 등)도 종종 있다. 그런데 주말 저녁식사는 꼭 상에다 차려 거실에서 먹어야 한다. 드라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T.V를 볼 때는 아무도 같이 오랜동안 보지 않는다. 채널권도 없지만 재미를 같이 못느낀다.

아이들은 각 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본다. 아내는 왔다갔다 가족들 눈치를 보며 먹을 것을 챙겨주고 시간이 나면 남아 있는 가사일을 한다.

남편은 수 년전 동료 교수가 큰 아파트로 이사하여 집안에 별도로 꾸민 서재를 보고 매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남편도 가족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공간을 배려해 주고 싶다.

3. 아이들과의 벽만들기-원훈은?

현대에 지어진 대개의 집이나 아파트는 모두 폐쇄된 여닫이 문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문을 열고 살았다. 아이가 세 살 적 일이다. 아침에 혼자 늦게 자고 일어난 아이는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평소에 장난을 하면서 문을 쿵쿵 열고 닫아 손고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이는 공포로 울고 우리는 얼른 키센타에 연락하였다. 키센타에서 사람이 오기까지 20여분 동안 우리는 막힌 문을 사이에 두고

아이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결국 문을 고치면서 하는 키센타 아저씨의 말은 처음 못을 3개 박아야 하는데 2개밖에 박지 않아 쉽게 고장이 났다고.... 우리는 매우 화가 났다. 새아파트이고 입주한지 그리 오래지 않을 때였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문은 조금씩 닫혀져 가기 시작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문을 잘 잠그었다. 걱정이 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노크를 해야했다. 예의없는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되었으므로..... 우리의 사이는 점점 문이 만든 벽으로 어려워져 갔다.

이것은 생활주기에 맞는 주공간 요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례이다. 즉,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잠금쇠가 없는 반투명 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창호지 미닫이문을 추천하고 싶다.

4. 현대부엌이 기여한 점

전통적인 부엌의 대표적 단점이 있다면 취사, 식사 및 음식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가족들과 유리되어 여성들만의 노동적 가사행위로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실내공간에 통합된 오늘날의 부엌은 남성들을 이 공간에 끌어들이도록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냉장고라는 가전제품이 식생활에 대한 공헌, 특히 가사노동을 크게 격감시킨 데 대하여 모든 여성들은 이 발명가에게 감사해야 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격감시킨 대부분의 가전제품-전기밥솥, 세탁기 등등-은 대개 남성들이 발명해 주었다. 오늘날 여성들은 냉장고를 찾아 부엌에 오는 남성들(남편, 아들 등)의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우리 한국에도 앞치마를 두른 남성들이 머지 않아 많이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쓸 울 멩에(?)를 모르고 열심히 창의적 기계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더 많은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5. 아직도 부엌은 좁다

창의적인 생산적 힘에 의하여 오늘날 쉬임없이 많은 가전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홈쇼핑T.V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기위한 전략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주부는 가족들의 입맛에 맞게 또 현대라는 글로벌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한식은 물론 양식, 일식, 중국

식, 이태리식 뿐만 아니라 건강식, 자연식, 정력식, 수험생특별식까지 그때그때 음식을 끊임없이 선택하여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는데 하루도 모자라다. 이를 위하여는 온갖 집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밥솥이나 전자렌지, 그릇건조기외에도 믹서기, 주서기, 분쇄기, 토우스터, 커피메이커, 요쿠르트제조기, 콩나물키우기, 마늘다지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품목들의 가전제품이 부엌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용품들은 제자리 찾기가 힘들고 사용할 때에도 전기 콘센트가 부족하며 더욱이 작업대 위에 편하게 올려 놓고 만족스럽게 쓸 수도 없다. 이러한 기기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소유량도 증가한다(윤복자와외 1998).

일상적 식생활에 필요한 쌀이나 잡곡, 고추, 마늘 그리고 가끔 김치를 담기위한 공간적 여건이 그리 명쾌하지 않다. 아직도 부엌은 답답하다. 구석에 박힌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주부들은 가끔 외롭다. 멀리 들리는 T.V소리가 궁금하고 전화받는 남편의 대화 내용도 궁금하고 아이들은 무얼하는지도 궁금하다. 부엌을 거실로 옮겨볼까? 미국에서는 가족과 등을 대고 일하는 작업대의 단점을 아일랜드(섬)형으로 극복하므로써 가족을 바라보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경향이다.

6. 안방은 주부도 남편도 아닌 무소속 공간?

우리집 안방은 가로 4미터 세로 4미터로 약 45평이다. 장롱이 세 개 있고 서랍장 1개 삼층장 1개 그리고 더블 침대 하나있다. 침대는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던대로 양쪽 측면에 동작 공간 60센티미터 두기 위하여 방 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좌식용 공간은 없고 가구를 쓰기 위한 통로 공간만 주어진다. 이 방에서는 부부의 취침 이외에는 화장하고 옷입고의 기능 뿐이다. 매트리스 역시 교육적 이론대로 좋은 걸로 사서 본인이 디자인하여 주문 제작한 튼튼한 목재 틀에 올려 놓고 6개월마다 한번씩 뒤집어 깔고 생활한지 꽤 세월이 흘러 이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가운데가 좀 꺼져서 자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남편이 불평이다.

혼인 때 준비한 장롱을 여지껏 쓰니 낡기도 하였지만 외출용 양복을 다 수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바꾸고 싶은데 낭비인듯하여 참고 있다. 불박이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매매 시에 자개장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안방은 무슨 방인가? 이불장에는 가족들 이불이 서랍장에는 계절에 안입는 아이들

옷이 들어 있다. 안방이 지닌 전통적 방식으로 여성의 고유한 공간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그렇다고 남편과 공유하는 공간용 더욱 아니고 침대만 강조된 삶이 우리 주변에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침대는 공간의 상징이 아니다. 더우기 부부의 피안적 삶을 대변하지 못한다.

II. 문제 제기-현대 주거의 외모

1. 집을 보는 눈-건축가, 시공자, 정책가, 거주자, 도둑A

건축가들(건축공학과 출신의 남성들 대부분)이 지은 집의 도면에 나타난 생활공간에 대한 깊은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건축가들은 자신의 독자적 작품 세계를 나타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집을 작품으로 보며 안의 공간에 생활과 가족의 감성을 클라이언트 입장 속에서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건축가의 감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고집이 많이 나타난다.

시공자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기술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에 집착되어 있다. 부패고리로 이어진 건설구조의 체계는 하부구조에까지 관련되어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감 결여와 사회적 지명도의 저하로 인하여 공간보다는 시간을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본다.

정책가들 역시 시간을 존중한다. 전문가적 지식의 빈약과 일시적 생산 업적에 대한 양적 평가는 주거환경이 주는 중요한 생산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 입주시의 아파트 단지 옆에는 자그마하지만 언덕과 같은 형태에 꽤 많은 나무가 우거져 그런대로 거실 창 너머로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바라본 거실 창에 저쪽 길거리의 상가군 전등이 번쩍거리며 눈앞에 다가와 이게 웬 야경인가 놀라워 하였다. 결국 그 언덕 위의 나무는 베어지고 지금 우리 단지 옆에는 거대한 병풍처럼 펼쳐진 고층 아파트 2개동이 버티어 서고 말았다.

거주자들은 답답하다. 그러나 무엇이 답답한지 분석이 잘 안된다. 그냥 사회적 동류 인식에 따라 공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의 가치를 파악하기보다는 늘어 놓은 물질적 형태에 더 만족하고 적은 물질에 불만스러울 뿐이기 때문이다.

담이 높히 지어진 집을 볼수록 A는 즐겁다. 왜냐하면 밤에 일단 담장 안으로 들어

가면 주위에서 나를 눈여겨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것만 확인하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이니까.

창문을 열까? 아니면 출입문을 따볼까? 너무 쉽다. 그런데 물건 들고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 허나 그것도 옛날 이야기지 지금 돈안되는 물건이 뭐가 필요해. 현찰만 있으면 되지.

2. 아직도 집안이 귀중

눈을 돌려 우리 주거동네를 바라보자. 높은 담장, 시멘트벽, 육중한 대문 이웃과 눈을 마주치기에 그 벽은 너무 높다. 따라서 동네라고 이름지어진 골목 풍경은 너무 삭막하다. 쓰레기들만 아웅다웅 붙어있다. 공공행인이나 외부인들을 위한 정서적 배려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막힌 육중한 대문은 언제 열리나? 차의 진입에 필요한가 하고 보면 도로면으로 각진 계단이 놓여 그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사들어갈 때와 다시 나갈 때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상례를 위할 때던가 정도일 것이다. 어프로우치는 외부와 내부와의 경계이며 완충공간이다. 땅에 대한 개인의 소유관념과 강한 애착은 공동체 환경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최근 지어지는 신주택단지(일산, 전주서곡지구 등)는 법적으로 아예 담을 1.2미터 이하의 투명 담장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새로운 기대를 해 본다.

한편 공동주택은 여전히 집단 수용소이다. 획일적이고 기업이윤 추구적인 단지 조성 과 성의없는 단지 내 조경, 그리고 밀려난 듯한 구석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노인정 등. 그나마 재벌회사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만족감과 희열에 차있는 괴이한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3. 변화하는 신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신세대는 방랑자들이다. 그들의 정체성 찾기는 더욱 은폐되어 지는 듯 보인다.

신세대는 끊임없는 자극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비슷하다. 얼굴에는 또한 표정이 없다. 헤어스타일이나 루즈색이나 눈섭형태 등 웬지 봉건적 집단의 동질

성을 엿보게 된다. 따라하기가 점점 심해진다. 연예인 누가 사용한 헤어핀, 머리띠 등등.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배낭여행과 검은 얼굴빛의 아기와 관계는? 표정을 읽기가 쉽지 않다. 신세대들은 점점 더 단순하고 즉물적인 현상에 익숙한 것 같다. 많은 생각은 피곤하다.

혼인시 들어가는 물질적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이다. 이것은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화 되어있는데서 더 문제가 있다. 그 많은 가구와 살림들을 어떤 집에 풀어 놓을 수 있을까? 누구든지 신혼때에 시작되는 월세나 전세의 비용과 규모가 좋아져 삶의 질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여전히 딸, 아들 시집, 장가보낼 때 기둥 하나씩 잘라야 한다.

4. 대학가 원룸

대학가 주변에 원룸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열악한 자취방보다야 백배 낫다. 보따리의 공간 문화가 변하고 있다. 병풍처럼 쉽게 만들고 허무는 공간, 가변적이고 방하나만 달랑 있어도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공간의 경계가 무너져간다. 환경적 세팅으로서의 공간구성이 마련되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공간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5. 실내의 변화와 생활양식

주거학 연구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연구영역의 하나는 생활양식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주거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활양식의 특성을 조사해왔다. 실내디자인을 표현하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학력과 소득과 나이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으로 밝혀졌으며(김미희, 박영순등) 다른나라와 달리 공동주택에 집착하는 강한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주거내부의 용품을 통해 자아를 나타내려하는 여성들의 특성에 의하여 그 정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Ⅲ. 새 천년의 주거와 생활

우리들 삶의 구심성은 어디에 있는가? 일산 신도시 비싼 대지에 세워진 최근의 집들

은 대부분 미국 목조식 주거의 외관을 띠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값이 비싸지 않은 목조주택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신행 주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어떤 집은 미국 평면을 그대로 복사하기도 한다. 거실은 2층 천장까지 오픈되어(great room) 2층의 자녀방은 한쪽 끝에 작게 붙어 있다. 부엌 작업대도 미국인 사이즈로 높다.

새 천년의 주거는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또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 우선 선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앞서간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서 체감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와 주거

1) 거주지역의 변화 -도시와 시골-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가 시골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모래시계는 다시 뒤집어지기도 한다. 도시가 시골을 도시화하기도 하지만 시골이 도시를 시골화하기도 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서구에서 종종 있어왔다. 16세기 말부터 시골은 도시의 자본을 삼켜버리는 심연이 되었는데 그것은 토지를 사고 농업장원을 만들고 혹은 수많은 시골주택을 짓기 위해서였으며 베네치아는 17세기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이윤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시골에 퍼부었다. 런던이든 리옹이든 밀라노든 라이프치히든 이스탄불 등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언젠가든 이런 종류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시골과 도시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 분리와 접근, 분할과 재집단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전주시의 주택가 공터에는 어디든지 야채가 심어져 있다. 상추나 고추 깻잎 심지어는 옥수수까지 울타리를 만들어 그 밭아닌 밭을 보호해주고 있다. 시골은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과 쓰레기로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도시는 시골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조달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와 시골을 잇는 도로의 확장으로 연결되며 외곽에 건설된 도시고속도로는 점점 더 빠르게 도시와 시골을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도시 거주에 짜증이 난 일부 전원 추종자들은 도시에서 다시 시골로 이주하게 되고 이것은 더욱 확장하여 새로운 도시인들의 거주단지가 시골 안에 형성되어져 갈 것이다.

이제 새천년에는 도시와 시골의 거주개념은 아주 회박해 질 것이다. 도시는 지방자치체의 전략적 강화에 따라 색깔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의 솔레이크 시티 같은 종교적 공동체처럼 확대된 지역도 나타날 수 있다. 농촌-폐쇄형 동족부락에서 개방형 생산 부락으로 도시인들을 흡수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페르낭 부로델은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모든 도시 공동체들을 사전에 분할했고 세분했으며 중국은 성씨(gentes)승배가 서유럽에서 도시를 만들어낸 것과 유사한 융합을 못하도록 방해한 요인으로 보았다.

2) 도시의 녹지

일본의 수도 도쿄는 세계적 수준의 과밀도시이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는 일상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소공원들이 개방적(구석진 장소가 아닌 의미)으로 계획적 조성되어 주말에는 근처 거주자들이 가벼운 운동과 산보 휴식을 취하고 보육원의 종일반 아이들은 매일 정해진 산보를 통하여 심신을 다져간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단지를 둘러보면 아파트가 들어선 대지 보다 녹지가 훨씬 더 크게 조성되어 있다. 공동주택의 디자인은 획일적인 단조로움과 권태를 주는 것이 아닌 입주자의 프라이버시와 공동 여유공간을 넉넉히 확보하여 주고 있다. 한쪽에 밀려난 한국의 단지내 놀이터에 비하여 아이들만이 아닌 어른과 공유할 수 있는 휴식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아이들의 놀이에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대한 법은 아주 까다롭다.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은 놀이 기구자체에 대한 안전성 허가의 검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를 구비하는 조건으로 기구 3종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나무 그늘 없는 노출된 모래밭에서 땀을 흘리며 논다. 이제 엄마들은 알고 있다. 오늘날 대학부설 어린이집은 굉장히 인기가 좋다.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이 도시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캠퍼스 안에 자리잡아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무를 심어 녹지를 조성하는 일은 거주 환경 뿐 아니라 관광 사업에도 좋은 것이다.

3) 도시화와 광장

분산된 기능이 통합되어 가고 있다. 통합된 힘만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불러 모

은다. 마트와 백화점, 스포츠센터, 같은 유형의 상가들이 합치거나 그렇지 못하면 한 장소에 모여든다. 별도로 있을 때의 회소성에 대한 상품가치는 구시대적 착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장소성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에게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인구 밀집이 생기면서 이 장소성 이미지는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 같다. 서울의 여의도 광장, 중국의 천안문 광장, 또 요코하마의 파시피코 컨벤션 센터의 내부와 도로는 광장 건축이다. 파리의 새 명소인 라데팡스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방해하는 자동차를 지하 도로로 보내버린 거대한 도로 광장이다. 이 거리를 오르다 보면 개선문과 마주한 신개선문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마치 하늘에 오르는 관문인 것처럼... 최근 건립된 일본 후쿠오카의 캐멀론 시티는 광장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거대한 주차장 건물이에워싸여 있다.

도시환경에는 이런 광장을 통해 숨쉴수 있는 장소가 점점 필요하다.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런던의 무질서함은 대파괴를 계기로 17세기 말 골든스퀘어, 버클리 스퀘어, 쾨싱턴 스퀘어 등의 대광장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아름답게 되었다.

장소성의 증가는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

2. 주생활의 방향

집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소유양식이다. 그러나 물질로서의 집과 환경은 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적 상품화 집착이 아닌 삶을 위한 인간의 존재를 영위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집의 기능을 단순화시키는 산업사회의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속성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

슈바이처는 이미 금세기초 서구문명의 위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전제에서 산업시대의 인간을 “자유가 없고..., 산만하고..., 불완전하고..., 인간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는” 존재로 특징지우고 일에 대한 집념이 끼치는 파괴적 영향과 노동과 소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갈파하였다.

주거가 소유가 아닌 존재(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에서의 존재 개념)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거주자는 에리 프롬이 제시한 ‘생산적 능동성’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소유한 물건과 공간들을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공간과 생활의 종속

그동안 건설되어 온 아파트 평면의 양적 발전은 놀라울만 하지만, 질적 평가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각 민간건설 아파트는 평면 유형이 매우 표준화되어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모두가 평형대별 크기나 내부 마감재료에만 차이가 있을 뿐 외양은 거의 비슷하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양 선전하지만 여전히 상자속의 상자(boxes in boxes)일뿐이다. 단지설계를 보면 각 세대별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거나 단지별 개성을 부여하거나 외부 생활(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공간, 진입도로의 완충공간 등)을 배려한 선진국형 디자인에는 아직도 어렵었다. 내부설계 역시 개성 있는 커닝 한국인의 식생활, 외생활 등을 고려한 가사공간의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 거실 앞의 베란다의 아름다운 조망은 커닝 빨래널기나 수납공간의 연장으로 쓰여 오히려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주부들은 거실에까지 분주히 왔다갔다 바쁘기만 하다.

21세기에는 기능적 공간 디자인이 완수되어 질적 의미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다. 남성의 가정 머물기가 수월하고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의 배려가 필요하며 모든 공간에 성적 구분 보다는 구성원이 함께 쉴 수 있는 안식처(shelter) 및 생산과 의미의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주공간 디자인은 내부 기능은 물론 외부인의 행위 기능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거주자들의 왕래 빈도에 따른 단지내 흐름은 물론 이웃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자연적 만남의 공간을 유도하거나 다양한 모델로 집합주택의 확일성을 경감시키는 디자인이 출현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생활주기나 생활양식에 따른 다양한 평면과 설비를 가진 주거평면에 의하여 신주거개념이 정착되고 사람들은 평수라는 크기에 생활수준까지 예측해버리는 오류와 저질의 소유개념에 종속된 공동주택 편견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2) 주생활의 질적 영위와 관리

흔히 하는말로 한국사람은 집을 살 때 뿐이라고 한다. 즉 샀을 때의 상태 그대로 생활을 소극적으로 유지하지 적극적으로 공간을 바꾸거나 개조하기는 커닝 수리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은 경제적 요인으로 이유가 큰 점도 있었겠지만 살아

가는 과정을 담는 집의 존재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투자비용에 대한 아까움이 가족들의 삶의 안식처로서의 심리적 환경보다 더 우위인 것이다.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은 바뀌고 있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집의 소유나 이동이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내부 관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분적으로 새아파트임에도 마감재료를 바꾸는 비난을 받는 현상도 있지만, 이러한 적극적 주거 관리 현상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무와 자극을 줄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적극성은 집의 구조적 용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다양한 마감재료의 판매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다(Do it yourself)는 자신감이 집관리를 더욱 부추킬 것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집의 내부가 자아상징의 표현으로 활용된다는 인류학적 견지는 실내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는 독창적 가구의 사용이 확대 되어지는 반면 수납 기능을 충족하는 붙박이 공간의 확대로 기존 가구의 획일적 제품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가구디자이너의 다양한 점포가 확대되기도 할 것이다.

3. 주거와 디자인

1) 공동체로서의 집

이제 새천년에 이루어야 할 집은 다른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고 감성의 시대이다. 또한 성공의 시대에서 의미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디자인은 더욱 발달할 것이다. 남성위주의 근대건축은 '건설'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와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남성적 성향과 여성적 성향이 서로 균형있게 상호보완을 이룰 때 우리 환경은 풍요 창조적 삶의 질과의 연계도 좋아질 것이다.

닫혀진 얼굴이 아니라 열린 얼굴로 이웃과 공존할 수 있는 집의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소유에서 실존으로 성공에서 '자아구현'으로 가치관이 옮겨지는 것이 성숙된 인간과 사회의 지표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적 설계', '참여의 설계', '장소성의 설계'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단독주거의 외관과 동네이미지

앞에서 말한대로 우리나라는 단독주거의 나열이 지닌 아름다운 정경과 따스함을 찾

아 볼 수 없다. 외관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육중한 철대문은 지나기가 겁난다.

일본은 높은 담을 보기가 어렵다. 출입문은 대개 도로측으로 나있고 대문은 경계를 상징하는 정도로 아주 작다. 이러한 진입 외관은 이웃과 자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형태적 특성을 띤다. 기후가 식물 키우기에 좋은 탓도 있지만 외부인을 위한 식물가꾸기는 물론 동네이미지와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즉, 우리들의 환경은 우리들 손으로 창출하자는 슬로전을 갖고 주체적인 도시계획 참가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동네가꾸기 운동으로 발전하여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러한 운동은 이미 60년대에 시작되어 '환경협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녹지나 문화적 건축물은 물론 지하수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문화적 특색까지 살리도록 동참할 수 있는 주민의 성숙된 태도는 이미 공동체 의식과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동체 환경을 역사와 공존하면서 현대에 적용한 절제되고 조화로운 집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노력을 건축가, 건축주, 행정가가 함께 지녀야 할 것이다.

4. 한국주거의 정체성에 대한 과제-역사속의 수레바퀴

1) 한국 주거 난방의 독창성-구들에서 온수난방까지

약 12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에 벽난로가 없었다. 그때까지는 등그런 화로가 방가운데에 있어 요리하는데에만 쓰이고 있었다. 이 벽난로는 그 주변만 따뜻해서 겨울을 보내기에 방은 너무 추웠다. 프랑스 백작부인 팔라틴은 1695년 2월의 기록에 “왕의 식탁에서 유리잔 속의 물과 포도주가 얼었다”고 적었으며 1709년 파리에서는 이 가혹함이 심해져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파리처럼 죽어갔다고 한다. 유럽에서 18세기 이전에는 가구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었다. 16-18세기에도 유럽인들의 상당수는 “돼지와 울타리 하나 사이로 떨어져서 침대도 가구도 없이 짚단 위에서 자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이미 삼국시대에 온돌이 개발되어 조선 중기 16-17세기에는 제주도까지 보급되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에 비하여 얼마나 월등한 문명적 생활을 한 셈인가?

한 때 식민지 사관의 날조된 자기비하 및 극단적 기능주의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통주거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왔지만 이제 한옥은 조선시대가 지닌 특성에

그 이상 부합하지 못할 정도의 훌륭한 주공간이었음을 부인하는 학자는 별로 없다. 조선과 비교한 오늘날 집의 변화에 대한 기본 이유는 근대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더 밀착되어 있다. “집”은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간에 집요하게 자기를 보존하고 지탱하고 반복하려는 문명과 문화의 완만함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려는 것이다. 전세계의 어디에서든지 전통의 연속성은 시골 사람들에게서 한층 더 강하다.

한국의 전통주거는 벽의 건축이 아닌 지붕의 건축이고 열려있는 건축이며 맥락적 건축이었다. 건물과 환경의 연결에 주안점을 두고 자연의 기가 건물을 통해 사람에 연결되는 흐름에 더 초점을 두고 설계된 지형적 대지적 설계이었다. 이러한 유기적 개념은 가옥이 지닌 우주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오늘날 신도시의 생태적 환경 계획에 대한 기초적 개념이다.

도시에 대한 많은 의견과 정책과는 달리 현대에 맞는 형태적 외관으로서의 집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다. 즉,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주거계획이 그리 쉽지 않은 아닌 일이며 여기에는 많은 논의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주생활면에서 기능적인 입식과 정서적인 좌식을 절충하여 더 멋진 공간을 창출할 것인지와 주거의 외관을 서구주거의 복제가 아닌 한국적 특성을 담은 독창적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매우 중요한 밀레니엄시대의 주요한 우리 과제인 것이다.

난방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후적 조건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서 착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바닥에 대한 청결의식도 있을 것이며 편한 자세를 선호하는 밀착된 공간의식의 문화적 속성도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 무리없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공간을 잘 활용하는 민족이다. 새천년에도 이러한 주생활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IV. 에필로그-오가와 교수의 실학사상과 그의 집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동경대에서 동양사상을 전공하는 50대 후반의 일본인이다. 1년간 동경에 있을 때 남편이 그의 초대를 받아 함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목조 2층짜리 아담한 단독주택인 오가와교수의 집은 실내에 들어서면서 복사기가 입구에 놓여 얼마나 학자적 열성이 가득한지 느끼게 해주었다. 자녀가 없이 내외만 둘이 사는

집이라 아래층은 널찍이 서재를 갖추어 놓고 있었던 반면 아래층에는 작은 거실이 하나 더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다타미방으로 된 거실에서 낮은 좌식 테이블에 앉아 차를 대접받았다. 거실 바닥에는 차도 선생인 부인의 차 도구 이외에는 이렇다할 가구나 가재가 전혀 없었다. 전공자로서의 호기심은 2층을 보기를 원했고 부인은 안내를 해주었다. 2층에는 최근 개조한 부엌과 식당, 그리고 부부침실인 다타미방이 이어져 있었다. 오가와교수의 부부방은 상당히 의아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서랍장과 간단한 옷장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마 물어볼 수는 없이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 그야말로 머리속에 떠오른 단어는 조선시대의 선비들 규범으로 따라다니던 단어-‘검소’와 ‘청빈’-이었다. 일전에 방문했던 모회사 이사의 잘 차려진 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머리속에 의문점을 안고 귀국한 후 3년. 오가와 교수의 저서가 국내에 번역(실사구시를 말한다, 강, 1998)되어 발표되었다. 실학에 관한 그의 단편이 편집된 이 책을 읽고서야 그의 집이 비로소 이해가 가게 되었다. 그의 사상이 실천적 삶 안에 용해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을 읽으면서 뇌리를 스치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오가와교수는 일찌기 서양컴플렉스를 불식시킬만한 동양의 사상가를 찾다가 한국의 실학자인 홍대용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홍대용의 나라에 유학을 와(1978년) 지속적인 조선실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홍대용을 발견할 때 그야말로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는 뛰어난 사상을 이미 18세기에 전개하고 있었던 거목으로 평가하고 숭상하고 있다.

실학은 20세기에 들어서 최남선, 문일평, 정인보 등에 의해 18세기를 정점으로 한 신학문의 조류가 재발견되어 이를 실학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성호 이익을 태두로 하는 경세치용파,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후생파, 완당 김정희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는 실사구시파이다. 실학이라는 학풍은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선비들의 비판의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이우성). 오가와교수의 책을 읽으며 필자의 뇌리에 스친 감응은 이 실학에서야말로 오늘날 우리 생활과학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지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오가와교수의 말을 이어보자.

“근대 이전의 삶의 태도에 열렬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며 퇴행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 폭발과 한정된 자연환경 및 자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소비를 줄이고 물자의 부족을 빈곤이라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환경의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 근대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서 우리의 눈은 근대 이전의 세계를, 그것도 매우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삶과 자연과의 공생이다.

사물이 있으면 우리들은 그것에 쉽게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우리들이 외계와 접하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과 외계의 접촉은 간접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물을 많이 갖추어 외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든다. 또 우리는 편리하기 때문에 사물을 이용한다. 편리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경감해주기 때문이다. 간접화와 노동력의 경감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 즉 신체에 갖추어진 운동능력의 에너지를 더욱 감소시키는 한편 그 능력 자체를 퇴화시킨다. 또한 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해야한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관리에 정신을 빼앗기게 된다. 많은 사물에 우리의 신경이 쓰이면 그만큼 우리는 피곤해진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가 인간을 대단히 어리석고 편협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소유감각은 모든 육체적·정신적인 감각이 소외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절대적인 청빈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은 다시 인간적인 눈이 되어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론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물질 중심의 세계에 대한 지향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적어지며 인간의 감각의 소외는 가난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집-에는 너무나 많은 물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불필요한 가내용품들이 과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건 편리한 수단을 위해서건 너무 많다. 자아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물건의 짧은 수명이 이를 증명한다-것이다.

물질소유의 지양은 정신적 주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가옥의 개념이 전통사회에서 지닌 우주적 개념보다도 기능적 영역적 개념으로 몰아치는 데서 물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우려가 깊어진다. 지나친 물질 지향사회는 문화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고 잃어버린 자연(정신)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아마도 수백배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세기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감각은 물질과의 투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자

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닐까 반문하며 '물질걸르기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밀레니엄 환경에 일조하는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고주석(1998). 삶의 질과 거시적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학술대회자료집.
2. 이어령(1998).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학술대회자료집.
3. 이연숙(1998). 삶의 질과 미시적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학술대회자료집.
4. 小川晴久저, 황용성 역(1998). 실사구시의 눈으로 시대를 밝힌다. 도서출판:강.
5. 住田昌二(1984). 現代住居論. 光生館.
6. 에리 프롬, 최혁순 역(1999). 소유나 존재냐. 범우사.
7. 페르낭 브로델 저, 주경철 역(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I-1. 까치.
8. _____(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2. 까치.
9. SETHA M.LOW, ERVE CHAMBERS, 주거문화연구회 역(1994). 주거 문화디자인. 신광출판사.

인간 중심의 주거 지향

박 경 옥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I. 가족은 집에 얼마나 불만족한가

발표자는 도입부분에서 사례를 들어 현재 도시 중산층의 주거생활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이 현재의 주택 내에서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거주자를 위해 공급된 아파트의 문제점을 물리적인 측면과 생활상의 부적응 측면으로 나누어 발표자의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에서 철제한 장인 정신의 부재, 부모 자녀의 교류를 차단하는 문의 형태, 남편공간의 부재(사랑방의 부재), 좌식과 입식생활의 혼재 - 특히 비밀상적 생활시의 공간과 생활의 부적응, 한국적 식생활과 괴리된 부엌 작업대, 주방 홀로 고립시키는 위치에 있는 부엌, 안방의 고유한 공간적 성격이 사라진 부부침실로서의 안방, 아파트 외부공간 부대시설의 획일성 등 이들 각각은 주거학에서 중요한 연구테마가 되고 있는 항목들로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주거학자가 바라본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거주자들은 불만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도시화가 가속화된 이래의 우리 나라의 주거상황에 기인한다. 주거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국가 경제부흥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워 가치적인 것에 매달려 왔던 지난 40년간의 결과로 사회전반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누적된 병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부족한 주택수를 늘리기 위한 100~200만호 주택건설과 같은 대량건설로 인해 부실공사가 자행되었으며, 가구수에 비해 부족한 주택은 가격상승의 폭이 큰 재산증식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으므로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가 중시되는 상품이었다. 자연히 주택과 그를 둘러싼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1990년대 중반이후로 변화하여 현시점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주택보급율이 90%이상으로 상승하여서 투자가치 있는 상품으로서의 주택의 기능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새로운 눈

으로 주택내의 가구, 벽·창호·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평면구성, 외부주거환경 등이 생활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거주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주거공간이 가족간의 교류를 감소시키지는 않는지, 주부만이 부엌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부엌의 위치 때문은 아닌지, 거실을 확장·축소해서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는 없는지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II. 도시-농촌의 공존을 위한 전망

발표자는 앞으로의 주거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주지로서의 도시와 농촌 지역, 미시적인 측면으로서의 주택과 생활을 제시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세기는 도시와 농촌의 거주개념이 회박해질 것이라고 하였고 농촌이 개방형 생산부락으로 도시인을 흡수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현재 도시인들이 도시에서 교외지역 또는 농촌으로 거주지역을 옮기는 전원주택 거주 증가 현상이나, 국가가 농어촌지역에 하고 있는 문화마을 사업은 외견상으로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문화마을 사업이란 농어촌의 정주생활권의 중심마을에 100~300호 규모의 집단화된 현대식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만들어서 농어촌의 청장년 인구유지 및 도시민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농어민과 도시민의 다양한 계층이 혼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식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그러나 전원주택 거주자나 문화마을 단지 내에 도시로부터 이주해온 거주자들을 조사해 보면 자연스러운 도시-농촌의 융화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지역에서 거주하지만 전혀 다른 생산과 소비를 하는 생활집단이 한 이웃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지만 일주일 단위의 생활리듬을 갖는 통근 생활자와 계절 단위의 시간주기를 갖는 농업종사자가 이웃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이 두 집단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도시인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시각은 항상 도시인의 입장에서 농촌을 바라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인구이기는 하지만 도시를 지원하는 농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농촌주택의 문제도 언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지어진 농촌지역의 신축주택은 부엌과 거실이 일자로 마주보고 있는 평면구성이 대

부분이며, 내부 마감재의 부적절한 선택, 슬라브 지붕 일변도의 외관, 담의 폐쇄성으로 도시지역의 또 다른 단독주택가를 바라보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은 농민들이 주택정보의 통로를 알지 못하여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에 맞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정보창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도시의 문제로 본 녹지부족과 광장의 장소성 확보 기능미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전문가와 이를 수용하는 정책 담당자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기 집 이외의 외부공간 더 나아가서 도시공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공간적 권리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 주거의 문제를 단위주거로 좁혀서 생각하는 사고로는 절대로 단지의 개선, 구역의 개선, 도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단체에서 도시와 주택에 관련된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의 TV 뉴스보도에 의하면 대구의 한 단독주택가에서 두 집이 자기 집 담을 허물어 집이 흰히 들여다 보이게 하고 자기 집 정원을 동네의 작은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폐쇄적인 담이 방법과 이웃관계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담을 허물었다는 것은 그 동네의 가로 경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동네사람들에게 휴식공간·녹지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마을을 역동적인 살아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 변화의 전제는 주택에 대한 재산가치·경제 종속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개인의 의식전환이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비정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주택내 생활에 대한 주체자로서의 의식은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나의 공간으로 여기게 되어 애착이 생기며 이런 가운데 자연스레 장기거주의식이 형성된다. 오래 살게 된 집과 동네에 대해서는 작은 주거불만족에 이사를 결정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조와 수리를 선택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주택을 개조하는 과정을 통해 주거를 자아실현의 공간으로서 여겨 심미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이고 한국적인 미의식을 적용한 주택이든, 최첨단의 개념을 수용한 주택이든 개성적인 주택을 만들어 가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들은 더 나은 집의 비교를 통해서만이 현재의 문제점을 알 수 있으며, 가족만의 성(城)으로서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가 보여줄 수 있는 집이 된다면 비교를 통해 문제의식이 생기고 주거환경은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단위주거공간을 넘

어서 외부공간까지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된다면 주택을 둘러싼 주거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이웃과 같이 가꾸고자 노력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Ⅲ. 보편적 디자인이 적용되는 주거

앞으로 세기에 대한 주택의 전망에서 한가지 보태고 싶은 것은 인구구성에 대한 변화가 주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이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노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므로 주택도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주택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노인은 시설주거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거에서 계속살기를 원하므로 앞으로 건축되는 주거에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적 디자인은 평생을 위한 디자인이며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생동안 일어나는 거주인의 변화를 수용하여 환경과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다. 주거환경에서도 이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집을 만들고 있으며, 단차가 없는 바닥,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료로 마감한 화장실과 욕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을 가진 출입구와 통로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 원리를 적용해서 도로, 공공건물을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기존의 주택에 있어서도 개조를 통해 이런 디자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노인이라면 자신이 살아왔던 집에서 일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주택가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건강한 거주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학자의 역할은 주거환경에 산재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생활과 주거환경과의 부적용을 분석하여 충실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그 시대에 맞는 한국적 생활양식을 체계화하여 인간중심의 주거가 계획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